

주일예배

오전 10:00

사회: 김 성목사

(*) 표시는 일어섭니다.

찬 양	한중사랑교회 찬양팀 / 다같이
*목상기도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찬송가 64장 / 다같이
대표기도	박봉선 집사
성경봉독	빌립보서 1장 12절 / 사회자
설 교	“초점”/ 조명희 선교사(캄보디아)
찬 양	복음송(주님 다시오실때까지) / 다같이
함성기도	다같이
특 송	1대5지역(허락하신 새 땅에)
헌 금	찬송가 50장 / 다같이
헌금기도	서영희 목사
*찬 양	부흥(이 땅의 황무함을) / 다같이
*축 도	서영희 목사
성도의 교제	통지 / 새신자 환영

봉사안내

	6월 17일	6월 24일	7월 1일	7월 8일
봉사	1대8지역	1대9지역	1대10지역	1대11지역
특송	1대5지역	1대6지역	1대7지역	1대8지역
사회	김 성목사	조황주목사	이상부장로	김학수목사
기도	박봉선집사	최명철집사	김연화집사	오순희집사

수요예배, 토요성경공부

수요예배	찬양: 남승명 설교: 박나미 선교사(태국)
토요모임	찬양: 김학수 반별성경학습
백두산모임	매주수요일 오전10시 인도: 김 성 목사
주바라기모임	매주목요일 오전10시 인도: 김학수 목사

임송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림

※ 무명을 제외한 주일, 감사, 침일조, 절기, 기타헌금의 명단이 주보에 기재됩니다.

■ 침일조: 권영란, 김미주(진후, 지원), 김선희², 김성남¹, 김순선², 김연화³, 김영옥¹⁶, 김영희⁸, 김인옥³, 김일³, 김정환(최정), 김창걸, 김해월¹, 김홍매³, 남림, 도정에, 손명도, 양홍길, 우영자, 유옥자, 윤수복, 이운선¹, 이정옥³, 이정진(정연옥), 이춘련(백원성), 이춘자¹⁰, 정옥순⁴, 정죽순, 정춘실, 조영애¹, 채영금, 채영월, 최경순³, 최금자², 최분련, 한보옥, 한춘화¹, 황옥화, 무명²

■ 감사헌금: 강영자³, 강중술, 강준희¹, 권영순, 권용(배혜숙), 김선희², 김성, 김성도², 김성숙, 김연화³, 김영옥¹⁶, 김영옥⁸, 김옥분⁸, 김옥순¹⁰, 김옥화², 김용덕², 김용호¹, 김인옥³, 김중식, 김춘란², 김춘매¹, 김중정, 김학래, 김혜성, 김홍¹, 김홍매³, 남승명(배혜숙), 남영숙, 남영현, 남옥자⁴, 남홍자(달원), 노정숙², 류창해, 박성호², 박순옥⁴, 박정해, 방춘자, 백원성(이춘련), 서영희목사, 성순업, 신규일, 안원석, 엄순금, 연화선, 원동석, 원명옥, 유석기, 유석림, 유옥자, 유용녀, 유월선, 윤기현, 이동복², 이상부, 이순자², 이영화⁶, 이정자¹, 이정진(정연옥), 이춘란², 이춘심, 이춘화⁶, 임경애, 임남순, 장선녀, 장영순³, 장혜자, 전덕생, 전복덕(정학), 정금선¹, 정금선², 정복순², 정옥순², 정옥순⁴, 정춘자¹, 조영애¹, 조정숙¹, 조현, 주옥일, 차순금, 차춘복, 채규범(박성업), 채영금, 채영주, 최경순³, 최광춘¹, 최명옥¹, 최복순⁵, 최성호², 최영희, 최옥금, 최옥진, 최철, 최혜숙, 최화, 하용범, 한홍룡, 허동호, 허문섭, 황금선¹, 황보국

■ 건축헌금: 김창걸, 소영옥, 정옥순⁴, 채영금

■ 선교헌금: 강은혜, 김홍매³, 정옥순⁴

■ 후원(약값): 강복화, 안봉여, 황미옥, 무명¹

◎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간증) “우리동포들에게 준절이란..”-남림-

할렐루야! 2012년 1월 23일, 설날이죠, 이 설날 한중사랑교회 직분자 271명이 강화도 원니스 수양관에 직분자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평일이면 모르겠는데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설 명절에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동포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핍박과 조롱과 매서운 눈초리를 외면하고 ‘나는 강화도로 가노라’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것은 또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넘 넘 멋집니다. 대형 버스 5대가 동원되어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교통 체증으로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멀미를 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멀미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만나러 간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아주 결연한 표정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분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주님은 수양관에 대가족의 잔치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로서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 교구별 나눔, 세족식, 맛있는 식사교제, 식사전 성구 암송(남 제미있었어요),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기도,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대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새겨 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마12:50) 우리는 가족이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의 표어는 ‘버려야 산다’였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술의 부끄러운 말이라’(골3:8) 이 말씀 앞에 직분자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 다음주 계속

즐거연왕

지역	교구	3일	10일	지역	교구
1-01	101	8	5	2-07	21
	102	8	8		21
1-02	103	9	6	2-08	21
	104	5	5		21
	105	3	3		21
1-03	106	5	5	2-09	21
	107	6	6		22
	108	3	3		22
	109	7	6	2-10	22
1-04	110	4	4		22
	111	3	6	2-11	22
	112	15	13		22
1-05	113	6	9	2-12	22
	114	7	6		22
	115	5	5		22
	116	4	3	2-13	22
1-06	117	4	4		23
	118	5	5	2-14	23
	119	6	3	2-15	23
1-07	120	5	7	2대 수	30
	121	8	5		30
	122	7	7	3-01	30
1-08	123	6	6		30
	124	5	5		30
	125	8	7	3-02	30
	126	7	5		30
1-09	127	9	5		30
	128	7	8	3-03	30
	129	5	5		30
1-10	130	7	7		31
	131	5	6		31
	132	7	7	3-04	31
1-11	133	7	5		31
	134	9	7	3-05	31
1-12	135	6	6		31
	136	7	5	3-06	31
1-13	137	9	9		31
	138	7	2	3-07	31
	1대 수	244	219		31
2-01	201	10	9		32
	202	8	7		40
2-02	203	8	7	4-01	40
	204	11	10		40
2-03	205	7	7	4-02	41
	206	8	8	3,4대 수	41
2-04	207	10	3	어린이	
	208	10	11	새신자	
2-05	209	7	9	미혼인	
	210	6	8	소계	
	211	10	7		
2-06	212	8	8	총계	
	213	3	2		